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9월 18일 수요일 (음 8월 20일) 제237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천주교 치명자 성지에 평화의 전당 조성 '첫 삽'



17일 전주 치명자산 성지 공사현장에서 열린 천주교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 전당 착공식에 김선태 천주교 전주교구장과 송하진 도지사, 송성환 도의장,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첫 삽을 뜨고 있다.

전북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거행

공로자 대상 시상식 병행

전북도가 올해로 44주년을 맞은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열어 지역 안보와 국민안전 지킴이로서 민방위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전북도는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직장민방위대장, 읍·면·동 민방위협의회 위원 등 3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방위대 창설 제44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부대행사로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을 실시했다. 기념식에서는 민방위 육성 공로자들에 대해 시상식도 병행했다. 대통령 기관표창에 김제시, 국무총리 표창에 원주군청 민방위대장 등 15명이 받았으며, 전북도지사 기관표창에 부안군이, 개인표창에 전주시 민방위대장 윤명숙씨를 비롯한 12명이 도지사, 35보병사단장, 전북지방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이어서, 민방위대 창설 의의를 기리며, 민방위 신조도 함께 낭독했다. /김진성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첫 발생

돼지에 치명적인 전염병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도 파주의 한 돼지농장에서 발생했다고 17일 공식 확인했다. <관련기사 3면·6면>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경기도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어미돼지 5두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 위생시험소에서 폐사축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 17일 오전 6시 30분경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이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발생원인을 파악 중이며, 인근농장 전파 여부도 확인하고 있으나,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위치한 양돈농장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경기도 한 농장서 어미 5두 폐사... 검사결과 '양성' 판정 정부, 신고접수 직후부터 출입통제·긴급 방역조치 시행

발생 의심신고가 접수된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으며, 기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3팀, 6명)을 투입해 신고농장의 농장주, 가족,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했다. 거점소독시설(16개소)과 통제초소(15개소)도 운영해,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조치도 강화했으며, 발생농장 및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3950두에 대한 살처분 조치도 실시해 초동 방역조치를 완료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확인 판정 즉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따라서 17일 오전 6시 30분부터 48시

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Sankbill)을 발령했으며,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의 돼지 반출을 일주일 간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실시하고, 전국 양돈농가 6300호의 의심증상 발현여부 등 예찰도 즉시 실시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전파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남은음식물의 양돈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도 실시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 종식을 위해 지자체와 축산 농가에도 방역 조치가 현장에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김현수 장관

를 당부했다. 한편, 전국 지자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상황실을 즉시 설치·운영, 양돈농가 등 축산시설 일제소독, 도축출하전 임상검사, 의심축 발생 시 신고요령 홍보 등을 조속히 실시하도록 했다.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 관련 시설은 내·외부 및 출입차량 소독과 ASF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검역본부, 지자체 등에 신고 하고, 전국 축산농가 모임·행사 금지 등 열병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수공통 전염병이 아니며, 시중에 유통되지 않으므로 국민들도 안심하고 국산 돼지고기를 소비해도 됨을 당부했다. /김윤성 기자

전주, 영화촬영 일번지 '우뚝'

'기생충' 이어 공유·박보검 주연 '서복' 도 촬영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올해 현재까지 560일 가동 중

세계적인 영화의 도시 전주가 영화촬영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이는 올해로 20년째 전주국제영화제가 개최된 전주에서 한국영화 사상 최초로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기생충의 절반 이상이 전주에서 촬영됐고, 올해 최고 기대작으로 평가받는 공유·박보검 주연의 영화 '서복'도 전주에서 촬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전주영상위원회(위원장 김승수 전주시장)는 한국영화의 역사를 다시 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의 60%가 전주영화종합촬영소에서 촬영되는 등 실내스튜디오 촬영은 물론 야외촬영까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전주에서 영화촬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전주종합촬영소에서 기생충에 이어 현재 죽음을 앞둔 전직 정보국 요원 '기연(공유)'이 영생의 비밀을 지닌 인류 최초 복제인간 '서복(박보검)'과 그를 차지하려는 여러 세력파적 속에서 위험한 사건에 휘말리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영화 '서복'이 촬영되고 있다. 전주영화종합촬영소는 △인적 네트워크 교류를 통한 공격적인 마케팅 △제작사(감독) 로케이션 및 촬영팀을 위한 현장 로케이션 지원 △진략적 유치물 위한 인센티브 지원 등 타 지역과 차별적인 지원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 전주영화종합촬영소의 운영일수가 올해 현재까지 560일 가동되면서 연 목표인 운영일수 500일을 초과 달성하기도 했다. /송호철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TV
Dolm NAVER 전북뉴스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본사: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3F

JJC전북총국: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